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08년 12월 9일(화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친권법 개정 논란, 그 해법은 무엇인가?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주 관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(구 한국여성개발원)

배포 날짜 : 2008년 12월 9일(화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info@kw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www.kwdi.re.kr)은 오는 12월 11일(목)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「친권법,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」를 주제로 제5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.

제51차 여성정책포럼 개최

- 주제 : 친권법,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
- 일시 : 2008년 12월 11일(목) 15:00 - 17:30
- 장소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
- 주최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- 후원 : 민변 여성인권위원회

□ 제51차 여성정책포럼 개요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오는 12월 11일(목)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「친권법,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」를 주제로 제5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.
- 이번 포럼에서는 친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.
- 이날 포럼에는 친권법 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.

□ ‘친권법 개정’ 위해선 다양한 각도의 검토 필요

- 얼마 전 고 최진실의 죽음 이후, 부 또는 모의 자격이 부족하거나 자격 없는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.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연구실 인권·안전센터의 박선영 센터장은 “ ‘친권자가 누구인가’ 라는 문제는 부모와 자녀관계, 가족의 범위, 가족

과의 관계 등 다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.” 라고 지적했다.

- 또한 박선영 센터장은 “친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친권의 권리로서의 측면보다는 의무로서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 ②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서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도입 ③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혈연보다는 가족의 기능을 중시하여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 ④ 입양을 중심으로 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 ⑤ 가족과 국가의 관계 재정립 등의 사항에 대한 복합적 사고가 요청된다.” 고 밝혔다.

□ 친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 확산 기대

- 이날 포럼에서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기자가 「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」을 주제로 발표하며,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복순 연구위원이 「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」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.

- 주제발표 후, 법조계·여성단체·학계의 친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.

*** 참석 토론자(이름 가나다순)**

김수정 변호사(민변 여성인권위원회)
유경희 대표(한국여성민우회)
이박혜경 연구위원(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)
이혜원 교수(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)
전경근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과)
최정인 판사(서울가정법원)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친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대와 친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한다.
- 또한,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친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.

별첨 1. 행사일정

별첨 2. 발표원고(파일 첨부)

별첨 1. 행사일정

<행사일정>

구 분	세 부 내 용
14:30 - 15:00	등 록
15:00 - 15:10	사 회 변화순 성평등 연구실장(한국여성정책연구원) 인사말 김태현 원장(한국여성정책연구원)
15:10 - 16:00	주제발표 1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친권제도의 문제점 조이여울 기자(여성주의 저널 일다) 주제발표 2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박복순 연구위원(한국여성정책연구원)
16:00 - 17:00	지정토론 (이름 가나다 순) 김수정 변호사(민변 여성인권위원회) 유경희 대표(한국여성민우회) 이박혜경 연구위원(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) 이혜원 교수(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) 전경근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과) 최정인 판사(서울가정법원)
17:00 - 17:30	종합토론 참석자 전원
17:30	폐 회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구 한국여성개발원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www.kwdi.re.kr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